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牆垣) 연구

강만익*

<차례>

- I. 머리말
- II. 국마장 제주 설치와 잣성 축조과정
- III. 잣성 분포실태와 축조방식
- IV. 잣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 V. 맺음말

국문요약

잣성이란 명칭은 1970년대부터 제주도의 지형도(1974년 편집)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용어로, 조선초기부터 한라산지에 설치된 국영 목마장의 상하 경계에 쌓은 돌담을 가리킨다. 이러한 잣성은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간장으로 구분된다. 이중 하잣성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외의 경계부근에 그리고 상잣성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와외의 경계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중잣성은 상잣성과 하잣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는 잣성이다.

상·중·하잣성들은 목마장 상하한선을 나타내는 경계선인 반면 간장은 각 목장간 경계선에 해당된다. 하잣성은 중산간 목축지에 방목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의 농경지에 들어가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조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중산간 지대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이 지대를 목장지대로 지정한 다음 안정적으로 말을 사육할 목마장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한국사, 지방사)

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잣성들을 통해 제주도민들은 일찍부터 한라산지를 공간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해발고도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지역구분-해안지역, 중산간 지역 및 산간지역-보다 먼저 이루어진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잣성은 제주도민들을 부역형태로 동원하여 축조되었으며, 하잣성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잣성들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거나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잣성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감안할 때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하루 속히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기념물 등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잣성은 첫째, 중산간 지대에서 행해진 목축이라는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며, 둘째,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유적경관이라는 점에서, 셋째, 선형(線形)의 유물(적)로, 제주도에만 남아있는 역사유물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며, 넷째, 단순한 돌무지가 아니라 제주도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역사적 유물(적)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선시대 목축활동과 관련된 잣성이 제주도에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차후 잣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이 시급하다.

주제어 : 한라산지, 잣성,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간장, 십소장, 산마장, 조선시대

I. 머리말

제주도 지형도를 보면 한라산지 중산간 동부지역에 성(城)이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돌담은 현재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표선면 중산간 지역에 선형(線形)으로 길게 잘 남아있어 눈길을 끈다. 이것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 ‘잣성[잣담]’이라고 부르는 돌담이다. 이것은 외적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용 석성이 아니라 우마를 기르기 위해

설치된 국영 목마장의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만든 돌담이다. 이것은 또한 조선시대에 제주도 한라산지에 국영 목마장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음을 실증하는 역사유적에 해당된다.

특정지역에 있어서 과거 역사의 전개를 입증하는 역사유적은 중앙역사(中央史)와 지방역사(地方史)가 상호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유적은 그 자체로서 특정시대의 정치·경제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특정 역사적 사실이 해당지역에서 어떻게 수용되어 지표상에서 전개되었는지를 밝히는 근거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에서 논의할 제주도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사(濟州史)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목장사(牧場史)를 상징하는 역사유적인 동시에 제주지방사를 엮어나가는 소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잣성은 단순한 돌무지가 아니다.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석성이다. 또한 조선시대 중산간 지역 주된 토지이용 형태인 목축업 전개를 입증하는 유적경관(遺蹟景觀)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조선왕조가 국가권력을 이용해 제주도민과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지배했던 역사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통적인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잣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음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이 연구는 첫째, 제주도민들에게 잣성의 역사적·문화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둘째, 잣성을 문화재, 민속

1)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원읍역사문화지』, 2008, 160쪽.

자료나 기념물 등으로 지정, 보호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 시도는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의 실체를 구명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제주도 잣성의 형성과 지역적 분포 그리고 잣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 2000년부터 이루어진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도 국영목장인 십소장(十所場)과 산마장(山馬場)의 상·하한선의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잣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잣성이 조선시대 제주도 목마장 운영과 관련된 역사유적임을 감안하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 『탐라지』, 『제주계록』, 『제주읍지』 등의 문헌자료와 함께 『탐라순력도』,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지도』와 같은 고지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 자료들은 잣성의 축조과정과 위치 및 경계선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울러 잣성이 조선시대 목마장터에 실존하는 유적이기 때문에 GPS, 1:5000, 1:25,000 지형도 및 1:5000 지적도를 가지고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위치를 확인했다. 그러나 잣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잣성이 위치하는 중산간 마을 노인회관(어음리, 송당리 등)을 방문, 촌로들과의 면담 및 안내를 받았다.

Ⅱ. 국마장 제주 설치와 잣성 축조과정

1. 국마장 설치배경

제주도 잣성은 조선시대 한라산지에 설치되었던 국영 목마장의 산물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라산지는 중산간 지대(200m~600m)와 산간 지

대(600m 이상 : 한라산 국립공원내)로 구성되는 지역이다.²⁾ 이중 중산간 지대는 목장을 만들기에 유리한 환경사 지형과 함께 우마 먹이인 풀이 자라는 초지가 발달하여 목축의 적지가 되었다. 산간지대 특히 산정부에서도 우마방목이 이루어졌다. 제주도민들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해발 1950m 한라산 백록담에서도 우마를 방목했다. 이곳에는 우마생존에 필수적인 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정부 남동사면에서도 환경사면을 이용해 방목했다. 실례로, 산간지대의 지형과 기후환경을 경험적으로 인지한 산남지역(특히 서귀포시 하원, 도순, 호근, 토평 등) 일부 주민들은 이 장소에 해마다 소를 올려 방목했다(이를 '상산방목'이라 한다). 이곳은 해발고도가 높아 여름철이 시원하고 그로 인해 진드기 피해가 적은 곳이었기 때문에 방목이 가능했다. 이 지대에 우마를 방목한 것은 산정부의 지형조건과 기후환경을 인식한 주민들의 생태지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라산지에는 2차 초지대, 오름(측화산), 하천, 삼림지, 꽃자왈, 화산회토, 용암평원이 입지하고 있다. 이들 자연환경 요소들은 고대로 모두 목축의 시·공간적 확대를 좌우했다. 이중 목장이 위치했던 중산간 지대 오름(측화산)들은 그 자체로 목장을 나누는 경계선이나 방풍기능 및 방목지로 이용되었다(더위에 약한 소들은 더위를 피해 오름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하천·도순천·효돈천과 같이 폭이 넓고 계곡이 발달한 하천들은 목장간 경계선 및 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접근이 비교적 쉬운 하천들은 우마들에 물을 공급해주기도 했다.

한라산지 북쪽은 겨울철 북서풍이 강하여 초목들이 쉽게 말라 버리나 남쪽은 겨울에도 눈이 잘 내리지 않고 따뜻하며, 나뭇잎들이 떨어지지

2) 남제주군, 『군제60주년 남제주군지』 제1권, 2006, 42쪽.

않아 말들이 살찌는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다.³⁾ 또한 흐린 날이 많고 맑은 날이 적으며, 봄·여름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는 경우가 많다. 한라산지에는 우마를 위협하는 호랑이·표범·곰·송냥이·이리 등이 없어⁴⁾ 다른 지역(‘육지부’)에 비해 목축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이처럼 목축에 유리한 지형, 기후환경 덕분에 조선시대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 우마생산지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자연환경 속에서 제주도에는 15세기초부터 목마장이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본래 제주 한라산지에서 목마장은 고려말 삼별초 난 이후 몽골에 의해 설치되기 시작했다. 즉, 몽골 침입에 항거하는 삼별초군이 제주도에 입도하여 항쟁을 벌이다 여몽연합군에 의해 진압된 후 제주도에 주둔한 몽골군대는 군마공급을 위해 1276년부터 목장을 만들었다. 당시 몽골에 의해 조성된 소위 ‘탐라목장’은 몽골 동부 다리강가 대목장에서 방목 중이었던 말 160필과 소 그리고 목축 전문가들인 목호(牧胡)들을 불러들여 현재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평 일대에 설치되었다. 이때 설치된 ‘탐라목장’은 이후 지역적으로 확대되어 제주도 동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4세기말까지 근 100년 동안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한라산지에는 국영 목마장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고려말 몽골식 목장들을 재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제주도 국마장은 십소장, 산마장, 모동장, 천미장, 우도장(牛島場), 가파도별둔장(加派島別屯場)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중 제주도 국마장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십소장은 해발 200m~600m 범위에 설치되었던 목장으로, 10개의 소장을 통틀어 말한다.⁵⁾ 이러한 십소장은 감목관·마감·군

3) 『성종실록』 제283권 10월 4일 기사.

4) 李元鑣, 『耽羅志』 <風俗> 條.

5) 여기서 소장(所場)이란 중산간 지역에 형성된 대목장(大牧場) 또는 마정구획(馬政

두·군부·목자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마정(馬政) 조직을 통해 철저히 운영되었다. 제주목 지역에는 1소장부터 6소장까지 그리고 대정현 지역에는 7소장과 8소장, 정의현 지역에는 9소장과 10소장이 있었다.

산마장은 십소장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 산마장은 동부 산간지대를 중심으로 입지되어 영정조대에는 침장(針場), 상장(上場), 녹산장(鹿山場)으로 재편성되었다. 산마장은 본래 김만일(金萬鎰, 1550-1632)의 개인목장에서 유래했다. 즉, 현재의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중산간 일대에서 사목장을⁶⁾ 개척했던 김만일이⁷⁾ 임진왜란으로 인해 전마가 부족해지자 1600년(선조 33년)과 1620년에 각각 500필을 헌납하자⁸⁾ 조정에서는 제주목과 정의현 경계 부근에 동·서별목장(東西別牧場)을 설치(1620), 이 말들을 사육했다. 이후 1658년에 제주목사 이회(李檜, 1607~1666)의 건의로 동·서 별목장을 산마장

區劃)으로서 그 안에는 자목장(字牧場, 군[群] 단위 목장)이 있었다. 따라서 목장의 개념에는 소장과 자목장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목장은 둔마(屯馬)를 천자문의 글자로 낙인한 후 편성하여 만든 소규모 목장으로, 소장에 포함되었다. 둔마란 25필 규모로 무리를 지어 방목되는 말을 의미한다. 1개의 자목장은 암말 100필과 숫말 11필로 구성되었으며, 군두 1명과 군부 2명, 목자 4명이 자목장[군(群)]을 관리하였다. 조선후기에 제주도에는 이형상(李衡祥)·이원진(李元鎭)의 지적처럼 58~64개 목장이 존재하였다. 이때 목장은 자목장과 동일개념에 해당된다.

6)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박물관, 1996, 393-395쪽. 제주도에는 私屯場이라 불리는 私牧場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것은 개인이 목장을 설치하여 운영한 것으로, 생산된 말은 국가에 登錄하고 매매·처분 등에 통제를 받았다. 宣祖때 金萬鎰이 운영했던 私牧場이 대표적이며 1만여 필에 가까운 말을 목양하여 국가의 필요시에 전마를 공급하고, 馬種을 개량하여 양마를 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뒷날 山馬場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7) 조선조 선조 때의 '獻馬功臣'으로, 본관은 경주이며 남원읍 의귀리 사람이다. 일찍이 國畜이 결손되어가자 1686년(선조12) 말 500필을 조정에 헌납한 후에도 지속적인 헌마의 공이 인정되어 지중추(知中樞) 오위도총감(五衛都摠監 : 2품)의 벼슬을 상으로 받았다(金榮治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97쪽).

8) 『光海君日記』 권 155, 광해군 12년 8월.

으로 개칭하여 운영했다. 산마장은 십소장과는 달리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制)에 의해 운영된 것이 특징이다. 초대 산마감목관에는 김만일 아들인 김대길(金大吉)이 임명되었으며 이후 매 6년마다 경주김씨 가문 후손들에게 이 직이 세습되기도 했다.

해안지역에는 18세기 후반부터 소를 전문적으로 생산·관리했던 국영 우목장이 등장했다. 황태장(黃泰場), 천미장(川尾場), 모동장(毛洞場)이 그것이다. 이중 황태장은 1 소장 내에 위치하였으나 천미장과 모동장은 해안에 입지한 것이 특징이다. 우목장은 제주목사·감목관·우감·반직감 그리고 군두·군부·목자로 이루어진 관리구조에 의해 운영되었다. 조선후기 한라산지에 형성되었던 국영 목마장의 지역적 분포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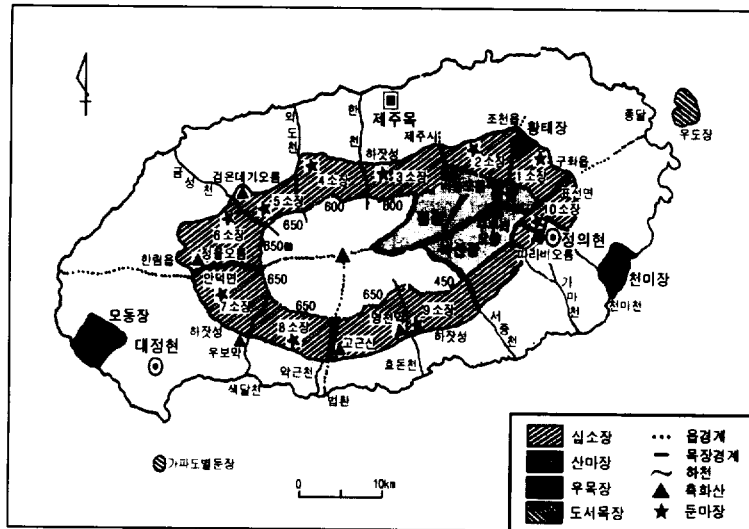


그림 1. 조선후기 제주도 국영목장과 그 공간범위
(출처 : 송성대 · 강만익, 2001)

2. 잣성의 의미

그러면 잣성이란 무엇인가? 이 명칭은 1970년대부터 제주도 지형도에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즉 지형도 제작과정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신조어(新造語)로, 목마장 경계에 쌓은 담장을 가리킨다.⁹⁾ 본래 ‘잣’은 성(城)을 의미하는 말이므로¹⁰⁾, 결국 잣성이라는 용어는 동어반복이 되는 셈이다. 제주어로 ‘잣’은 ‘닐따랏게 돌들로 쌓아 올린 기다란 담’을 의미한다.¹¹⁾

전통사회에서 제주도민들은 잣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잣’ 또는 ‘잣담’을 사용했다. 실례로, 마을 촌로들은 ‘알잣’, ‘웃잣’, ‘하잣담’, ‘상잣담’이라는 용어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목장에 쌓은 성이라는 의미에서 장성(場城)이라고 부르기도 했다.¹²⁾

조선시대에는 목마장의 돌담(잣성)을 어떻게 불렀을까? 이에 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속단할 수 없다. 다만, 『耽羅地圖並書』(1709)에 등장하는 ‘석장(石牆)’이나 『濟州啓錄』(1846~1884)에 기록된 ‘상하장원(上下牆垣)’이라는 용어들이 나타나고 있어 참고 된다. 특히 『濟州啓錄』 자료는 상잣성과 하잣성의 명칭과 역사적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잣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제주 지형도에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형도가 이미 전국 각지에 배포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9) 金奉玉, 「잣성」, 『굽소리』 4월호, 한국마사회, 1989, 48쪽.

10) 南廣祐, 『補訂 古語辭典』, 一潮閣, 1995, 418쪽.

11) 濟州道, 『濟州語辭典』, 1995, 484쪽.

12)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162쪽. 濟州道, 『濟州道誌(下卷)』, 1982, 115쪽.

잣성은 그 위치에 따라 하잣성, 중잣성, 상잣성 그리고 간장(間牆)으로 구분된다. 1:50,000지형도를 토대로, 여기에 나타난 잣성 위치를 보면, 대체로 해발 150m~250m 일대에 하잣성, 해발 350m~400m 일대에 중잣성, 그리고 해발 450m~600m 일대에 상잣성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잣성들은 한라산지를 환상(環狀)으로 크게 3등분하는 역할을 했다.

현지답사 결과 하잣성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외의 경계부근에 그리고 상잣성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와외의 경계부근에 동서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 하잣성은 중산간에 방목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 농경지로 들어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축조되었다. 그러나 하잣성 축조의 보다 본질적인 목적은 중산간 지대에서 부분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농경지 개간을 금하여 중산간 지대를 국마장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정책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³⁾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밀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¹⁴⁾ 중잣성은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공간에 축조되었다. 간장(間牆)은 목장을 남북방향으로 구획하기 위해 축조된 돌담이다.¹⁵⁾ 이것은 목장간 경계가 될 만한 하천이 없는 목장지역에서 각 목장간 남북방향 경계선 역할을 했다. 이것을 '사잇담', '선잣'이라고도 부른다. 조선후기에 설치된 산마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에도 간장이 설치되었다.¹⁶⁾ 지금까지 언급한 제주도 잣성들은

13)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 석사논문, 2001, 16쪽.

14) 「濟州邑誌」(1785-1789) <濟州牧 牧場> 條.

15) 강만익, 「조선시대 金萬鎰 家系 山馬場의 입지환경과 유적」, 「제주마학술조사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33쪽.

16) 「山馬牧場新定節目」, 乾隆五十九年(1794) 五月.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 농경지와 방목지 그리고 식생분포 즉, 초지대와 삼림지를 구분하는 경계선 역할을 했다.

3. 잣성 축조과정

잣성은 언제부터 축조되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되기 시작한 세종대 즉, 15세기 초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마장은 그 동안 제주도 전역에서 자유방목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우마를 특정지역으로 들여보내 사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마장 형성 과정에서는 제주도 출신 고급관리였던 상호군(上護軍) 고득종(高得宗)¹⁷⁾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임금(세종)에게 사료(가)와 같은 건의(1429년)를 하여 국마장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득종 건의가 세종에 의해 채택된 결과 비로소 한라산지에 국마장이 설치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잣성축조라는 대토목 공사가 제주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역사(役事)는 주민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졌으며 길이면에서 볼 때 조선시대 지방단위에서 이루어진 각종 공사 중에서는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세종실록』(1429) : 상호군 고득종 등이 상언하여 청하기를, ‘한라산 가의 사면이 약 4식쯤(약 120리 : 필자주) 되는 면적의 땅에 목장을 축조하여, 공사의 말을 가리지 말고 그 목장 안에 들여보내어 방목하게 하고,

17) 조선조 태종·세종 때의 문신으로, 한성부 판윤을 역임하고 효행이 뚜렷했던 인물이다. 본관은 제주이며, 남성(南城)안의 오현단 바로 앞에서 살았다. 상호군 고봉지(高鳳智)의 아들로 조친읍 교래리에서 태어났다(金絜洽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37쪽).

목장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백성 60여 호는 모두 목장 밖의 땅으로 옮기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땅을) 떼어 주도록 합니다.¹⁸⁾

그러면 당시 축조되었던 잣성은 무엇일까?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는 국마장을 설치함에 있어 농민들의 농경지(또는 거주지)와 목장지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잣성이 가장 먼저 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5세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하잣성 길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대해서는 당시 ‘한라산목장(漢拏山牧場)’¹⁹⁾ 목장 주위가 약 165리 정도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하잣성 역시 적어도 160여리 이상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라산지 잣성 축조에는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김영수, 송정규 그리고 정부 고위관료였던 서명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잣성 축조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사료들이 참고 된다.

(나) 『정조실록』(1782) : 제주어사 박천형(朴天衡)이 올린 별지보고서(別紙報告書)에 의하면, 산屯(山屯)에 쌓은 담장을 훼손(毀撤)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백성도 있다. 그러나 침장(針牆) 안에 가로 쌓은 담장(針牆內橫築)은 훼손하기를 원한다. 마장(여기서는 침장에 해당 : 필자주) 안에 횡축(橫築)한 이후 내축(內築)이 매우 좁아 말이 그 본성을 잃고 또 수초(水草)가 없기 때문에, 매년 고실(故失)되는 것이 8백여 필이나 된다. 내축(內築)이 말을 모는 폐단을 제거했으나 말의 손실이 많으니, 내장(內牆)을 훼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임금이 횡축(橫築)을 철거하라고 명했다.²⁰⁾

18) 『世宗實錄』 권 45, 세종 11년(1429년) 8월 26일(庚子) : “...上護軍 高得宗 等上言: ‘請於 漢拏山 邊四面約四息之地, 築牧場, 不分公私馬, 入放場內, 居民六十餘戶, 悉移於場外之地, 從願折給...’”

19) 『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1430년) 2월 庚辰 : “改築濟州漢拏山牧場周圍一百六十五里”.

20) 『正祖實錄』 13권, 6년(1782) 壬寅 1월 14일(辛亥). 원문 : 論山屯築牆之毀撤.

(다) 『承政院日記』(1623~1910) : 서명선이 말하기를, 당초 제주목사 김영수(金永綬)는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의적으로 축장했다. 산마들은 산판(山坂)을 상하로 이동하는 것이 본성인데 축장해버릴 경우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따라서 구마(驅馬)의 폐단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담장을 헐어야 한다.²¹⁾ 또 우진(羽晉)이 말하기를, 침장횡축(針牆橫築)의 바깥쪽에는 외장구지(外牆舊址)가 있어 전 목사 이양정(李養鼎)이 횡축을 헐어 새롭게 구장(舊牆)을 보수했다.²²⁾ 산마 3장(침장, 상장, 녹산장) 내에는 간장(間牆)이 있어 헐라고 명령했으나 전목사 이문혁(李文赫)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²³⁾

사료 (나), (다)는 공통적으로 산마장에 축조된 갯성에 대한 기록이다. 즉, 산마장 중 침장(현재 바농오름[針岳]이 위치한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리 일대에 해당) 내에 횡축(橫牆에 해당)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山馬牧場新定節目」(1794)에 수록된 지도로, 여기서 횡축은 가로질러 쌓은 돌담으로, 간장(間牆)에 해당한다. 이것은 구경당금(舊耕當禁 : 과거에는 경작했으나 현재는 당연히 금하는 땅)과 신정허경(新政許耕 : 새로이 경작을 허락한 땅) 땅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

民或不願，宜觀來頭，徐議處之。針牆內橫築，民亦願毀，宜先從之。上問御史曰：馬場周回爲幾何？馬匹爲幾何？天衡曰：周回四十里，馬匹元數二千餘匹，而內場橫築以來，內築甚狹，馬失其性，且無水草，故每年故失，多至八百餘匹云。命善曰：內築爲除驅馬之弊，而馬多損失，則內牆毀撤，難容少緩。上問諸將臣。僉曰：如前放牧宜矣。命先撤橫築。

21) 『承政院日記』 正祖 6년 4월5일(壬寅)(乾隆47년) : 命善曰...當初金永綬之不報本寺，恣意築牆者，誠極怪駭矣。...山馬之種子將絕矣。...馬之上下山坂，自是性也，而今若築牆拘牧，則必失其性，驅馬之弊，雖或有之，所築之牆，必當毀之矣。

22) 『承政院日記』 正祖 6년 4월 5일(壬寅)(乾隆47년) : 羽晉曰... 針牆橫築之外，又有 外牆舊址，而前牧使李養鼎，纔毀橫築，新修舊牆。

23) 『承政院日記』 正祖 8년 8월 10일(癸巳)(乾隆 49년) : 濟州牧使嚴思晚狀啓...因御史朴天衡狀請，山馬三場之內間牆，有並爲毀撤之命，而前牧使李文赫，未及舉行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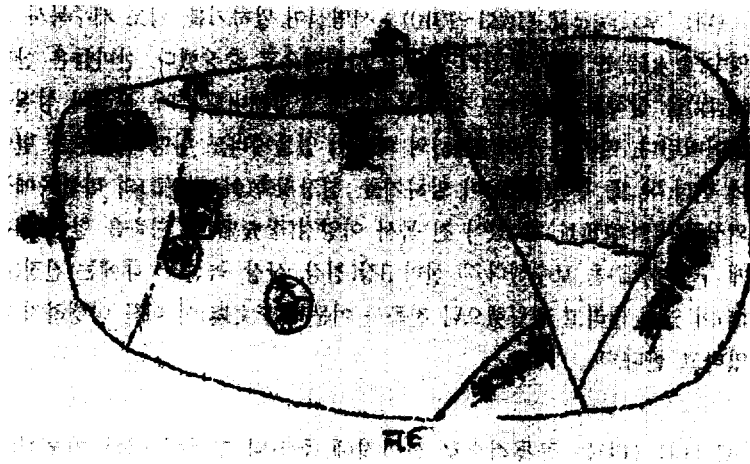


그림 2. 침장내 장식인 間牆 모습

(그림에 나타난 民村은 교래리, 川은 천미천, 館은 교래리에 있었던 객사, 場
桶은 말을 가두어 두는 공간, 大澤은 큰 못, 林藪는 꽃자왈을 의미한다)

사료 (다)에서는 산장에서 축장이 첫째, 당시 제주목사였던 김영수(金永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며 둘째, 구마(驅馬)의 폐단 즉 진상용 말을 선정하기 위해 넓은 산마장에서 말들을 몰아오는 데에 따른 노동력 동원 등의 폐해를 줄여보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산마장 축장 결과, 산마들이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두어져 버리기 때문에 산마들이 그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여 산마장 내 돌담을 헐자는 주장도 있었다.

(라) 『備邊司臚錄』(1782) : 제주목사 이문혁의 장계이다. 산장(山場) 횡축의 훼손 편부(便否)를 질의했다. 산둔마(山屯馬) 400여필이 고실되었다. (이것은) 모두 산장 횡축 후 즉, 횡축의 폐해이다. 명백히 (이를) 헐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백성들의 사정을 널리 물어본 결과 (횡축을 허는 것이)

진실로 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므로 3년 동안에 걸쳐 한 차례씩의 역을 통해 마땅히 (횡축을) 허는 것이 가능하다. 상장(上場)과 녹산장(鹿山場) 횡축을 훼손한다.²⁴⁾

사료 (라)에서는 산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횡축의 폐해 때문에 상장과 녹산장의 횡축을 헐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있다. 그런데 사료 (라)에서는 산마장 내의 잣성을 훼손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등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즉 횡축을 훼손하는 작업이 '3년 동안에 걸쳐 한 차례씩의 역(三年一次之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서 역(役)이란 곧 조선시대 수취제도의 하나인 요역(徭役)을 말하는 것으로, 전근대 시대 국가가 백성들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제도였다.

요역 중 토목공사 역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시키고 민력(民力)을 소모시키는 종목이었으며, 특히 축성역(築城役)은 많은 변경, 연변, 요해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역종목이었다.²⁵⁾ 제주도민들에게 역을 부과하여 산마장 내의 잣성을 헐었다는 기록을 통해 상·하 잣성을 축조, 보수할 때도 역시 제주도민들을 요역 형태로 동원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마) 『濟州邑誌』(1780-1789) : A) 목장 일소장(一所場)과 이소장(二所場) 간에는 본래 경계를 나누는 간장(間場)이 없어서 양장의 말들이 서로 왕래하여 많이 분실되었으므로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새로 936

24) 『備邊司謄錄』 壬寅十月二十六日：濟州牧使 李文燦狀啓也。山場橫築毀撤便否。今始指一論斷。而以爲。山屯馬匹四百餘匹之故失。皆在山場橫築後。則橫築之爲害。明白無毀。且廣詢民情亦曰。苟利於馬。則豈可以三年一次之役。當毀而不毀云。上場鹿山場 橫築毀撤。恐合事宜爲辭矣。

25) 윤용출,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제10호, 1986, 22쪽.

보의 간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²⁶⁾

B) 3소장(三所場)에는 본래 횡장(橫牆)이 없어서 곧바로 한라산의 정상에 통하였으므로 말이 많이 분실되자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비로소 1,110보의 횡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C) 오소장(五所場)에는 본래 횡장이 없어서 곧바로 한라산의 정상에 통하였으므로 말이 많이 분실되자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비로소 1,530보의 횡장을 쌓아 그 폐단을 막았으며 일의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D) 산마장은 한라산과 통하여 말을 몰아다 점검할 때 삼읍(三邑: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 필자주) 남정들의 폐단이 많아 지난 경자년 봄에 목사 김영수가 백성들의 소원에 따라 새로 횡장을 쌓고 또 문로(門路)를 설치했다. 가로로 긴 담은 11,013보, 높이는 4자이며 일의 형편을 조정에 보고했다.

사료 (마)에서는 십소장 중 제주목 관할이었던 1소장, 2소장, 3소장, 5소장이라는 목장명칭과 상앗성 및 그 잣성 길이가 구체적으로 등장한다.²⁷⁾ 여기서는 우선 간장(間場)이라는 잣성이 주목된다. 사료 (마)의

26) 『濟州邑誌』(1785-1789) <牧場> 條 :

A) “牧場一所場 幅圓五十五里 有水四處 二所之間 本無分界間場 兩場馬 互相往來多致闕失故去 庚子春 牧使金永綬 新築間場以防其弊 長九百三十六步形止狀”

B) “三所場 幅圓五十里 有水五處 本場無 橫牆 直通漢拏絕頂多闕失故去 庚子春 牧使金永綬 始築 橫牆以防其弊 長一千一百十步形止狀”.

C) 五所場 幅圓六十里 有水十八處 本場無 橫牆 直通漢拏山 多闕失故去 庚子春 牧使金永綬 新築 橫牆以防其弊 長一千五百三十步形止狀”.

D) “山馬場上場針場鹿山場通稱山場 幅圓二百里 有水二十三處 本場幅圓太闊 且上通漢拏山馬多闕失 每當驅點輒發三邑男丁爲弊多端故去 庚子春 牧使金永綬 從民願新築 橫牆 且設門路 春則放牧冬則圍養以防其弊 橫長牆一萬一千十三步高形四尺止狀”.

27) 각 목장의 현재 위치(공간범위)에 대해서는 즐고인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の 景觀研究」(제주대 석사논문, 2001)가 참고 된다.

A)는 일소장(一所場)과 이소장(二所場) 간에는 본래 경계를 나누는 간장(間場)이 없어서 양장(兩場)의 말들이 서로 왕래하여 많이 분실되었으므로 경자년(1780년) 봄에 제주목사 김영수가 새로 936보의 간장을 쌓았다는 내용이다(그림 3).

제주시 북동부 중산간에 위치한 일소장과 이소장 경계부근에는 말들이 뛰어 넘을 수 없는 하천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양장의 말들이 서로 섞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목장 말들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시대 분위기 하에서 신명을 다해 말 생산과 관리를 책임져야 했던 목자(牧子, 몰테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양목장간 경계를 구분하는 간장 축조는 매우 절실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목사 김영수 지시에 의해 936보²⁸⁾의 간장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B)와 C)는 3소장과 5소장이 한라산 정상과 통해 말들이 한라산 밀림 지대로 들어가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횡장이 축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횡장은 상жат성으로 판단되며(그림 3), 따라서 사료 B)는 상жат성 나아가 제주도 잣성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상жат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다. 사료 B)를 통해 1780년경에도 상жат성이 비록 일부이지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축조된 상жат성 길이는 3소장의 경우 1,110보, 5소장의 경우 1,530보이다.

D)에서는 산마장에 축조된 잣성 높이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기록을 통해 축조당시 한라산지 잣성들의 높이 규모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 1보는 대체로 1.82m에 해당되므로 936보는 1,872m, 1,110보는 2,020m, 11,013보는 약 20km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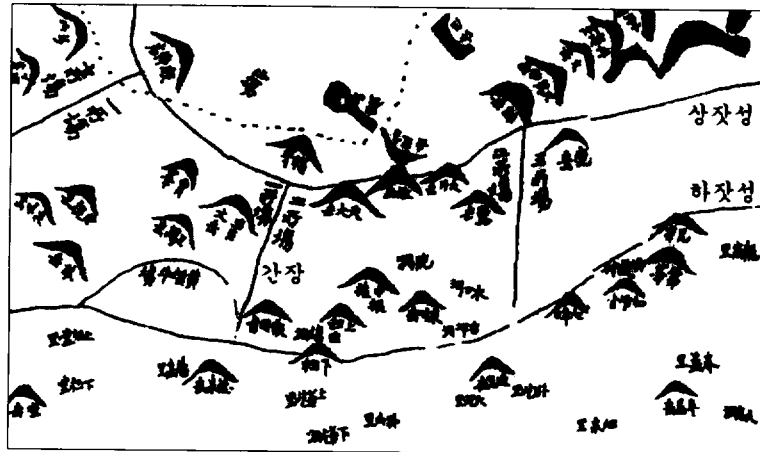


그림 3. <濟州地圖>(1899)에 나타난 잣성
(선으로 표시된 것이 잣성이다)

김영수 목사의 명령에 의해 축조된 산마장 잣성길이는 11,013보, 높이는 4자(약 120cm) 정도였다. 이 잣성을 축조하는 공사를 위해 수많은 노동력이 장기간에 걸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바) 『耽羅誌草本』(1841~1843) : 숙종 갑신년(30년, 1704)에 목사 송정규(宋廷奎)²⁹⁾가 임금께 글을 올려 목장에 돌로 울타리를 둘렀는데, 열악한 곳은 버리고 우량한 곳을 취하고 작은 곳을 합하여 크게 만들어 그 10소장을 영조 갑자년(20년, 1744)에 윤식(尹植)이 다시 임금께 글을 올려서 울타리를 더 쌓았다.³⁰⁾

29) 제주도 목장사에 있어 송정규는 첫째, 제주목사 재임시인 1704년 겨울, 도내의 각 목장을 개축하여 과거 60둔으로 설정해 놓은 것을 10소장으로 정비했으며, 둘째, 1706년 봄 함덕포 동쪽 해변에 있는 병산악(서산봉)에 西山場을 마련, 貢馬를 下浦하는 목장으로 이용하게 하여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30) 李源祚, 『耽羅誌草本』(夏) : “本朝牧場古爲二十所六十屯 肅廟甲申 牧使 宋廷奎 啓聞築場 舍劣取優合小爲大定爲 十所 英廟甲子 尹植更 啓加築”, 濟州教育

(사) 『濟州啓錄』(1846~1884) : 국축(國畜)이 많이 모자라 매우 황송하 온 바 금년은 비록(말을) 점검하고 낙인하는 해는 아니나 다소의 간악한 상황이 있어 하나를 미루어 백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나머지 방목하는 마축은 불가피하게 지금 그 수효를 대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7월부터 시작하여 해당 감목처(監牧處)에서 상잣과 하잣은 허물어지는 대로 수축한다.³¹⁾

사료 (바)는 1704년 제주목사 송정규(宋廷奎)에 의해 이루어진 목장들의 구조조정 결과 재편된 10소장과 함께 잣성을 늘려 쌓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사)는 첫째, 잣성(牆垣)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상잣성과 하잣성을 ‘상하장원(上下牆垣)’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하잣성과 상잣성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다. 둘째, 허물어진 잣성의 보수를 해당 감목처(대정현청, 정의현청, 제주목관아)에서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잣성 축조 역시 해당 목장의 관할 현청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이 사료 (가)~(사)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하잣성은 세종대인 1400년대 초부터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잣성은 조선후기인 1780년대에 비로소 등장했다. 이를 통해 1700년대 중반까지 제주도 국마장에는 해안지역과 중산간 지대 경계부근에 하잣성이 축성되어 그 기능이 유지되다가 17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상잣성이 등장함으로써 하잣성과 상잣성이 목장 상하 한계선으로 이용되었다고 사료된다. 특히 상잣성은 3소장과 5소장에서 먼저 형

博物館, 『耽羅誌草本』(春·夏)(上), 2007, 63-164쪽.

31) 西歸浦市, 『濟州啓錄』, 서귀포시고서총람 번역 1권, 1995, 62쪽 : “國畜之如是多縮誠極惶悚是白乎所 今年雖非點烙之次多少奸狀推一如百其餘 留放馬畜 不可不及 今照數故 始自七月該監牧處上下牆垣 隨毀修築”

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상жат성 축성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간장은 십소장간 그리고 산마장 지역인 침장, 상장, 녹산장에도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²⁾ 셋째, 잣성 축조와 보수 및 허무는 토목공사에는 백성들이 요역 형태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잣성은 조선초에는 150여리 정도에 불과했으나 『제주대정정의읍지(濟州大靜旌義邑誌)』(179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축성 길이가 597리로 증가했다.³³⁾ 이것은 국마장 면적의 확대 또는 잣성 유지, 보수 과정에서 상·하жат성 등이 신축, 개축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жат성은 하жат성과 상жат성 사이에 쌓은 돌담이다. 그러나 상·하жат성처럼 제주도 전역에 걸쳐 축조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1소장(성읍리 지역)에 대한 답사 결과 이곳에는 중жат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중жат성 축장시기와 규모는 관련 자료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단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³⁴⁾ 다만 다음과 같은 중жат성 축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만하다. 첫째, 상·중·하жат성이 동시에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주 섬을 마치 등고선처럼 3분하여 돌담을 쌓는 것이 조선시대 제주도 인구규모와 경제력을 감안할 때 과연 현실적으로

32) 『山馬牧場新定節目』(1794),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33) 『濟州大靜旌義邑誌』 正祖17년(1793), 南都泳, 전계서, 1996, 402쪽 : 이 자료에 의하면, 조선초 중산간 목장인 十所場 설치당시는 周圍가 165리였으나 조선후기인 1793년 경에는 주위가 597리로 확대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만일 목장의 상·하한계선에 잣성이 축장되었다면, 목장의 주위와 비슷한 규모로 잣성 역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약 600리 정도의 잣성이 제주도의 목장지역에 형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4) 중жат성 축조에 대해 18세기 이후 목장전 및 화전경작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하고자 한다.

가능했을지는 의문이다. 둘째, 중잣성 생성시기를 일제강점기인 1920~30년대로 보기도 한다. 즉, 이 시기에 들어와 상잣성보다 해발고도가 높은 목장지역이 일제에 의해 국유림으로 편입되면서 이곳에 방목이 불가능해지자 종래의 하잣성과 상잣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여 목축하기 위해 중잣성을 새롭게 축조했다는 견해가 있다.³⁵⁾ 그러나 1920~30년대에 제주도에서 중잣성 축조라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 견해는 수용하기 어렵다. 셋째, 18세기 이후 목장전 및 화전 경작과 연관되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중잣성 축조시기에 대한 답을 추후 사료가 보강될 때까지 유보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는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의 상호관계를 고려할 때 중잣성이 상잣성보다 먼저 축조되었을 개연성도 있음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사료들에서와 같이 하잣성 축조시기인 15세기 초반과 상잣성 축조시기인 18세기 후반 간에는 무려 3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공백 기간에 중잣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십소장 목장 상하경계는 하잣성과 중잣성이 되어 제주 목자(牧子)들은 하잣성과 중잣성 사이에서 말 생산과 관리를 했을 것이다. 이후 방목 중이던 말들이 한라산 밀림지대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자 국마장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제주목사가 주도하여 목축지에서 한라산 밀림지대로 들어가는 경계부분에 상잣성을 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잣성을 중심으로 이 잣성의 하부지역(중잣성~하잣

35) 松山利夫,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86, 321-322쪽.

성 사이의 공간)에 농작물을 재배할 때는 우마를 중갓성 상부지역(중갓성~상갓성 사이의 공간)으로 방목시키고, 반대로 중갓성의 상부지역을 경작할 때는 중갓성의 하부지역에 방목하는 토지이용 형태가 등장했다.

Ⅲ. 갓성 분포실태와 축조방식

1. 분포 실태

현재 갓성은 제주도 중산간과 산간지대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하갓성은 과거 목축지로 이용되었던 중산간 지대가 농경지화되고 도로건설이 늘어나면서 훼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밀림지대에 있어 쉽게 노출되지 않은 상갓성은 다행히도 그 형태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표 1>은 1:5,000 지적도와 1:5,000, 1:25,000 지형도에 표시된 갓성들의 분포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1:5,000 지형도에 나타난 갓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상갓성이 위치한 평균 해발고도는 450m, 중갓성은 350m 그리고 하갓성은 220m로, 지역차가 있으나 대략 100m 높이 간격으로 갓성이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라산지 남부 지역 갓성들은 산북 지역에 비해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산남지역(특히 9소장 지역)에는 경사가 급한 사면이 발달한 결과(즉 남사면은 북사면에 비해 한라산 정상부와 해안지역 간의 거리가 짧다), 하갓성이 해안과 가까운 지역까지 내려와 배치된 결과로 보인다. 상갓성의 총길이는 약 3,200m, 중갓성은 약 13,400m, 하갓성은 약 43,000m 정도이다.

〈표 1〉 1 : 5,000 지형도에 나타난 잣성 실태

도엽번호	구분	지역	길이(m)	고도(m)	위치
표선001	상잣성	교래리	500	470 ~ 455	붉은오름 북쪽 500m 일대
제주098	상잣성	교래리	2,775	450 ~ 460	구두리오름 ~ 제동목장
표선003	중잣성	가시리	2,875	325 ~ 350	소록산 · 대록산 ~ 안좌천
표선011	중잣성	수망리	1,825	350 ~ 375	수망리 ~ 한남리
표선012	중잣성	가시리	2,975	300 ~ 375	송천, 수령산(물영아리), 신흥리와 수망리 공동목장
		신흥리			
		수망리			
표선021	중잣성	한남리	325	350 ~ 360	민악 ~ 서중천, 한남공동목장
모슬포049	중잣성	상창리	900	300 ~ 320	상창리 ~ 창고천
		상예동	300	280 ~ 290	창고천 ~ 상예동, 경제림 단지내
제주084	중잣성	월평동	700	440 ~ 450	임야, 한라목장 내
		용강동	850	440 ~ 450	임야
제주085	중잣성	봉개동	1,475	460 ~ 470	임야, 거친오름 북쪽 200m 지점
제주100	중잣성	가시리	1,175	300 ~ 320	가시리 공동목장 내
표선004	하잣성	성읍리	1,900	200 ~ 230	모지오름, 남영목장 ~ 가마천
표선005	하잣성	성읍리	725	210 ~ 225	남영목장 초지조성지 ~ 천미천
표선013	하잣성	가시리	1,850	200 ~ 225	송천, 해림목장
		신흥리			
표선014	하잣성	가시리	1,175	200 ~ 220	번널오름 ~ 병곳오름, 해림목장
표선022	하잣성	수망리	3,400	190 ~ 220	과수원, 의귀천, 의귀리 공동목장
		의귀리			
표선023	하잣성	수망리	1,575	220 ~ 225	“모시아름” ~ “조죽이물”, 방목지
표선031	하잣성	한남리	2,550	150 ~ 180	서중천, “고나물” ~ “외무든 동산”
표선032	하잣성	한남리	625	180 ~ 190	남원 · 한남 공동목장 “동두리벵디”
한림080	하잣성	해안동	825	225 ~ 250	99번 도로 서쪽, 도근천 우측

한림088	하жат성	판령리	1,250	375~400	“칠성동산”~북군과 제주시 경계선
한림089	하жат성	해안동	2,875	240~250	외도천 동쪽, “윗동산”~“승굴밭”
한림090	하жат성	해안동	1,650	250~275	해안동~도근천, 해안동 “골람이”
서귀049	하жат성	신혜리	2,425	150~160	신혜농장, 영천약, 만지내, 학림동
서귀050	하жат성	위미리	1,465	150~160	전포천, 삼협농장, 포제동산
서귀051	하жат성	중문동	1,165	210~220	중문 공동묘지 아래 220m 지점 “셋정도” 아래
		색달동			
서귀052	하жат성	중문동	275	185~205	“가시머들” 아래
서귀056	하жат성	서흥동	900	150~175	“동과수원” 일대
		동흥동	725	150~175	에이리내, 과수원
서귀057	하жат성	동흥동	1,775	150~170	과수원(아폴로 농장), 임야, 밭

〈표 2〉 현존하는 잣성의 분포실태

분포 지역	유적명	수리적 위치	형태	면적(X 높이)(cm)
제주시	1소장 송당리 큰돌이미오름 잣성(間牆)	N33°25'31.8" E126°46'29.3"	접담	80×100
	1소장 송당리 빛돌오름 하жат성	N33°27'29.3" E126°45'34.4"	접담	80×100
	1소장 송당리 거센세미오름 잣성(間牆)	N33°26'34.5" E126°45'38.9"	접담	90×140
	1소장 송당리 성불오름 잣성(間牆)	N33°25'00.2" E126°45'17.8"	접담	120×110
	1소장 덕천리 사근이도 하жат성	N33°27'57.0" E126°44'38.6"	접담	80×90
	2소장 선골리 윗바메기오름 곡장(曲場) 잣성	N33°28'20.4" E126°43'13.4"	접담	100×120
	2소장 외홀리 하жат성	N33°27'46.5" E126°39'23.6"	접담	80×100
	2소장과 3소장 경계 잣성(間牆)	N33°27'51.8" E126°38'20.9"	접담	90×80
	3소장 월평동 증жат성	N33°26.705' E126°35.326'	외담	80×70
	3소장 봉개동 민오름 상жат성	N33°25.962' E126°38.212'	접담	130×90
	3소장 봉개동 공동목장 증жат성	N33°27.269' E126°37.332'	접담	120×80
	3소장 봉개동 명도암 하жат성	N33°28.104' E126°36.690'	접담	120×60
	교래리 구두리오름 상жат성(間牆)	N33°24.785' E126°41.254'	외담	130×60
	교래리 말жат오름 잣성(間牆)	N33°24'01.6" E126°40'13.1"	접담	60×120
	교래리 방애오름 대경목장상жат성(間牆)	N33°26'13.1" E126°41'47.8"	접담	90×110

	교래리 제동목장 상잣성(間竈)	N33°25'06.1" E126°42'32.8"	겹담	80×100
	5소장 광령리 오목이도 하잣성	N33°25'57.5" E126°26'48.6"	겹담	90×120
	5소장 광령리 밤낭밭 중잣성	N33°25'04.6" E126°26'51.6"	외담	30×100
	5소장 신업리 공동목장 상잣성	N33°23'20.7" E126°27'15.5"	겹담	120×80
	6소장 어음2리 '장삼도' 하잣성	N33°23.137' E126°20.953'	겹담	110×90
	6소장 어음2리 '계남도' 하잣성	N33°23'14.2" E126°21'39.2"	겹담	120×100
	6소장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하잣성	N33°22.775' E126°19.958'	겹담	150×90
	6소장 금악리 돛고분도 하잣성	N33°20.471' E126°18.664'	겹담	150×100
	6소장 금악리 정물오름 잣성(間竈)	N33°19'59.1" E126°20'09.9"	외담	60×110
서 귀 포 시	7소장 상창리 공동목장 상잣성	N33°19'09.7" E126°40'24.9"	겹담	100×130
	7소장 상창리 '진군오리도' 하잣성	N33°17.204' E126°21.976'	겹담	120×80
	8소장 도순동 상잣성	N33°16.751' E126°28.853'	외담	130×40
	9소장 하례2리 '벌산전' 상잣성	N33°18'28.2" E126°36'38.1"	겹담	100×120
	9소장 하례2리 학림동 하잣성	N33°17.304' E126°36.385'	겹담	160×100
	9소장 신례1리 만지동 하잣성	N33°17'29.0" E126°37'38.4"	외담	30×130
	9소장 위미1리 서성로 중잣성	N33°19'12.0" E126°39'08.6"	겹담	70×130
	9소장 위미2리 공동목장 하잣성	N33°18'12.2" E126°40'26.5"	겹담	60×100
	9소장 한남리 사려니오름 상잣성	N33°20'03.4" E126°39'02.4"	겹담	70×140
	9소장 한남리 중잣성	N33°19'09.7" E126°40'24.9"	겹담	70×110
	9소장 한남리 하잣성	N33°18'52.5" E126°41'14.2"	겹담	100×130
	수망리 중잣성	N33°21'30.3" E126°41'34.4"	겹담	120×140
	수망리 민약 중잣성	N33°20'57.3" E126°40'30.8"	겹담	80×120
	수망리 머루왓도 하잣성	N33°20'07.2" E126°42'42.0"	겹담	80×100
	10소장 성읍리 모지오름 하잣성	N33°23.553' E126°45.885'	겹담	70×70
	가시리 대륙산 중잣성	N33°23.458' E126°43.326'	외담	130×90
	가시리 갑마장 하잣성	N33°22'13.2" E126°45'01.8"	겹담	100×130

1:5,000 지형도에 표시된 이들 잣성의 총길이는 약 60km 정도이다. 섬이라는 환경을 반영하여 등고선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잣성은 남동북부 중산간 지역에 가장 많이 남아있다. 반면에 서부 중산간의 하잣성은 농경지와 도로 건설 등에 영향을 받아 훼손

이 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표 2>는 2000년부터 2008년에 걸쳐 이루어진 잣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일부 잣성들은 지형도 상에 단순히 돌담으로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평화목장 부근) 내에 위치한 하잣성을 1:25,000 지형도에서는 단순히 돌담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또한, 애월읍 어음 2리와 한림읍 금악리처럼 지형도와 지적도에 나타나지 않는 하잣성이 존재하고 있음도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³⁶⁾ 삼림지 내에 있어 노출되지 않은 중잣성과 상잣성들은 본래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2. 축조방식

잣성은 지방관아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을 동원해 축조되었다.³⁷⁾ 그러면 잣성은 어떤 방식으로 축조되었을까? 잣성이 축조될 위치가 기상변화가 많은 중산간 지대임을 감안할 때 쉽게 부패되는 목재대신에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으며 내구성 또한 강한 석재(현무암)가 잣성 축조 재료로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³⁸⁾ 현재 남아있는 하잣성 축조방식

36) 현지답사시, 양두석(64, 어음2리 2940), 고을선(77, 어음2리 3008), 안부일(봉성리 3228), 강창준(90, 봉성리 3865), 강순호(72, 봉성리 3857), 안호순(72, 금악리 2038-2)님의 도움을 받아 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6, 7소장 하잣성을 확인하였다.

37) 그러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문헌사료가 아직 발견되지 못해 잣성축조를 둘러싼 지방관아의 역할과 지역주민 동원방식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38) 제주도의 목장지대에는 석재를 이용하여 목장경계선을 구축한 반면 한반도 지역의 경우는 석재보다 목재를 이용하여 목장 주위에 목책(木柵)을 둘렀다. 조선시대 한반도 지역에 설치된 목장의 목책에 대해서는 許積이 숙종4년에 제작한 『牧場地圖』가 참고 된다.

에 대해 조선시대 9 소장에 속했던 남원읍 한남리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 하잣성의 동쪽 높이는 170cm, 서쪽 높이는 100cm, 폭은 100cm 가량 된다. 경사면을 이용해 잣성을 쌓았다. 동쪽은 비교적 작은 돌을 이용해 일정하게 쌓아올렸다. 서쪽은 비교적 큰 암석을 이용해 쌓고 있다. '남산동산' 절개지 부근의 하잣성은 높이 130cm, 폭 90cm 가량 된다. 밑에는 큰 암석을 이용하고 위에는 비교적 작은 암석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모두 겹담(쌓담)에 해당된다. 잣성의 가운데 빈 공간에는 자갈 등을 집어넣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³⁹⁾

자료 (아)(『조사보고서』) 내용을 검토하면, 첫째 하잣성은 비록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높이가 균일하게 축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잣성이 축조된 기저부 높낮이가 달라 잣성이 파랑상(波浪狀)으로 쌓여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잣성 폭(넓이)이 90~100cm로 겹담으로 축조되었으며, 아울러 강풍에 잣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잣성 가운데 빈 공간에는 자갈 등을 집어넣어 견고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잣성 축조에 필요한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하잣성은 겹담으로 동서방향으로 연결하여 길게 쌓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즉, 하나의 마을에서 공급되는 노동력만으로는 모두 쌓을 수 없으며, 인접 마을과 공동작업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하잣성이 축조될 인근 여러 마을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았으며, 잣성 축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 마을에게 일정 축조범위를 할당했다. 이러한 실례는

3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녹차재배개간에정지내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2000, 12쪽.

정의현(旌義縣) 법환리와 호근리 간에 이루어진 다음의 축장 장면으로 알 수 있다.

(자) 옛날에는 ... 목장의 잣(城 혹은 담)을 할당하여 쌓았다. 호근리 담당구간은 '각시바위' 남쪽에서 시작하여 고근산 동편에서 끝나고, 법환리 담당 구간은 고근산 북쪽에서 시작하여 '빌레넷도(頻來川)'까지 끝나게 되었다. 그런데 법환리 사람들은 모의하기를 자기들의 담당구역 안에는 성 쌓을 돌이 없으니 일하기가 곤란할 것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둠을 틈타서 돌이 많이 쌓인 곳을 골라 경계를 넘어 못 밖으로 쌓아 버렸다.⁴⁰⁾

자료 (자) 내용을 보면, 첫째, 잣성 축조가 마을별로 할당하여 이루어졌으며, 둘째, 잣성 축조 담당구역 내에 돌이 부족할 경우 멀리서 돌을 운반해 와야 하기 때문에 작업이 힘들어졌으며, 셋째, 그 결과 마을사람들이 모의하여 잣성을 쌓도록 지정되어 있는 지점(경계선)을 벗어나 돌이 많아 작업이 편리한 곳에서 잣성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 마을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동일한 하잣성이라도 마을에 따라 그 위치(잣성이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구부러지는)가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편, 하잣성과 상잣성은 형태면에서 일반적으로 겹담(‘접담’, 두줄로 만든) 구조로 만들어졌다. 하잣성은 예외 없이 겹담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하잣성을 겹담 구조로 만든 이유는 하잣성이 만들어질 위치가 농경지와 인접한 방목지였기 때문에 우마들이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보다 견고한 겹담 구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겹담 구조로 하잣성을 축조하는 데에는 많은 석재와 인력동원이 전제되어야 한

40) 許垠, 『好近錄』, 吳成贊 外, 『好近·西好里』, 도서출판 반석, 1986, 60-61쪽.

다. 이것은 하잣성이 촌락과 비교적 근접한 위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력동원이 용이하였으므로 가능했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잣성 형태를 보면, 높이는 대체로 110cm~170cm 내외, 넓이는 60cm~120cm 정도로, 축성당시는 현재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잣성의 전형적인 형태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공동목장 하잣성,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번널오름 갑마장 하잣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상잣성 역시 겹담구조를 보이거나 외담 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서귀포시 도순동 상잣성과 표선면 가시리 구두리오름 상잣성은 외담구조로 되어 있다. 시간변화에 따라 상잣성 형태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처음 축장시부터 외담구조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잣성 위치가 해발고도가 높은 삼림지대여서 접근성이 낮고, 둘째, 촌락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인력동원이 어려워 외담 구조가 선택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경우, 겹담 구조에 비해 견고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외담 구조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큰 암석을 이용하여 쌓았다. 중잣성은 해발 350m~400m 일대에 형성된 것으로, 하잣성이나 상잣성에 비해 축조시기가 늦으며, 겹담 또는 외담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IV. 잣성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1. 역사문화적 가치

현재 잣성은 주민들과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농로포장과 묘지조성 또는 정원석 등으로 잣성 돌들이 사용되면서 날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잣성이 지니

는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한 결과로 여겨진다. 제주도 잣성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첫째, 제주도 잣성은 조선시대 목장운영과 관련된 산업유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 오직 제주도에만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제주도 잣성은 이것의 축조 및 보수와 관련한 조선시대 지방관아(현청)의 역할과 주민동원 실태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잣성 축조 시기와 방법 나아가 지방관아의 구체적인 역할을 해명할 수 있는 사료들이 발견될 경우 잣성 축조를 둘러싼 이야기는 흥미로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주도 잣성은 단순한 돌무지가 아니라 도민들이 등에 돌을 지고 운반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축조될 중산간 지대에 일시 거주하면서 더위와 싸우며 직접 쌓은 돌담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도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제주도 잣성인 것이다. 따라서 쉽게 허물거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넷째, 제주도 잣성은 일찍부터 제주도민들 간에는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음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잣성 축조는 일정한 구간을 마을별로 할당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것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돌의 채취와 운반 그리고 식량 및 식수확보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에는 주민들 간에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 형성이 필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제주도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사(濟州史)에 있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공사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주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하잣성, 상잣성을 중산간 지대를 일주(一週)하면서 환상(環狀)으로 쌓았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며 이러한 예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제주도 잣성은 제주도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유적이라는 점에

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제주도 목축문화의 뿌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목축문화의 기저는 조선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축조된 잣성은 그 자체로 목축문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즉, 이것이 축조된 후 잣성 안 공간에서는 조선시대 조정(朝廷)의 ‘육지식’ 목장운영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칙들이 제주도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다양한 ‘제주식’ 목축문화들과 서로 융합되어 ‘제3의 목축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활용방안

제주도 잣성은 제주도의 산업유물인 동시에 목축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잣성 보호 및 활용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잣성을 문화재나 기념물로 지정, 보호하는 데에는 “잣성이 너무나 많아 그 가치가 낮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일각에 남아 있다. 앞으로 잣성을 제주사 현장체험학습자료,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도움을 주고자 필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이루어진 제주도 잣성 실태조사를 토대로⁴¹⁾ 보존상태와 역사적 가치, 접근도를 중심으로 가치가 높은 5개 잣성을 선정했다. 최소한 이들 잣성이라도 시급히 정책당국과 지역주민들의 합의를 통해 기념물, 민속자료 등 공식적 지정을 통해 제주사 현장체험학습 및 제주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41) 조사결과는 『남제주군 문화유적 분포지도』(1:5,000, 남제주군·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2003), 『북제주군 비지정문화재조사보고서』(북제주군·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5)에 실렸다.

1) 2소장과 3소장 경계 잣성 : 이 잣성은 제주시 회천동과 조천읍 와흘리 경계선에 해당된다. 제주시 생활체육공원(회천동 산1-2번지)과 조천읍 와흘리 전원마을의 경계가 되고 있다. 이 잣성은 전원마을 남쪽에서 시작하여 한라산 쪽으로 조천관광목장(조천읍 축산계 공동목장), 지그리오름을 지나 제주시 봉개동 민오름(651m)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림 4). 목장지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 잣성(間牆이라고도 함)이다. 이 잣성은 조선시대 중산간 지대에 설치되었던 10개 소장 중 2소장(조천읍 중산간)과 3소장(제주시 회천동~오등동)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 잣성(間牆)이다. 이 일대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잣성을 이용해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접담(“접담”) 구조이며 매우 견고하게 축조되었다.



그림 4. 2소장과 3소장의 경계 잣성

2) **교래리 구두리오름 상잣성** : 이 잣성은 조천읍 교래리 <제주경주마육성목장> 부근 구두리오름(517m)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구두리오름에서 출발하여 붉은오름(569m), 말차오름(653.3m) 하단부를 연결하고 있다(그림 5). 대체로 오름으로 이어진 삼림지와 <제주경주마육성목장>의 경계선이 되고 있다. 경주마육성목장을 만들면서 철조망을 이 잣성에서 10여m 떨어진 위치를 따라 설치해 놓고 있다. 해발 400m~450m 일대에 동서로 돌담이 길게 뻗어 있다. 이 잣성은 1:25,000 지형도에는 상잣성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 잣성은 조선후기에 설치되었던 3개의 산마장(녹산장, 상장, 침장) 중 녹산장과 상장의 경계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녹산장(鹿山場)은 조선시대 정의현에 소속되었던 대표적인 산마장으로, 김만일(金萬鎰)이 개인목장을 개척했던 장소와 관련이 있다. 상장 지역은 현재 <제주경주마육성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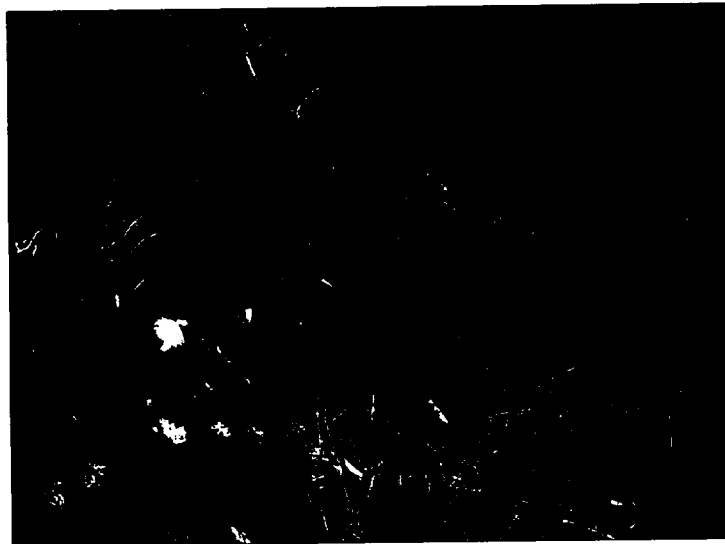


그림 5. 구두리오름 상잣성

3) **한남리 사려니 오름 상жат성** : 이 상жат성은 위미리와 한남리 경계가 되는 사려니오름(해발 523m) 남쪽 한남리 산2-1번지 산림청 임업연구원 제주시협장 정문까지 동서방향으로 존재하고 있다(그림 6).⁴²⁾ 이 잣성은 해발 350m 일대를 통과하는 서중천 중류지점에 위치해 있다. 남원읍 수망리 민오름 중жат성, 물영아리 오름 중жат성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려니오름 북쪽에는 밀림지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잣성은 중жат성이라기 보다는 상жат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측정지점 상жат성은 높이 140cm, 넓이 70cm이며, 겹담형태로 만들어졌다. 가운데는 화산탄과 화산력(자갈)을 이용해 채우고 있으며, 윗부분은 50cm×40cm 정도의 화산암괴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그림 6. 사려니오름 상жат성

42) 한남리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내고향 한남리」, 99쪽.

4) **가시리 대륙산 중잣성** : 이 잣성 주변에는 가시리 공동목장과 정석항공관, 제동목장 비행훈련원, 가시리 산68번지 일대 대륙산(474.5m)과 산 87-1번지 일대 소록산(441.9m)이 위치하고 있다. 자연초지대와 넓은 용암평원이 발달하고 있다. 조선후기 이 일대에는 대표적인 산마장(山馬場)이었던 녹산장이 입지하였다. 1:25,000 지형도에 의하면, 중잣성으로 표기되고 있다(그림 7). 그런데 『가시리지 가스름』에는 상잣성으로 표기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형도에 나타난 표기를 따라 중잣성으로 보고자 한다. 이 중잣성은 정석항공관 앞 임야에 동서방향으로 500여m 정도 쌓아져 있다. 이 중잣성은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길게 남아있으며 일대의 토지이용 방식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



그림 7. 가시리 대륙산 중잣성

5) **가시리 번널오름 갑마장 잣성** : 이 잣성은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산 10번지 번널오름(272.3m)과 산 8번지 병곳오름(288.1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교래리와 가시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통과하고 있다(그림 8). 이 잣성은 1:25,000지형도에 의하면 하잣성으로 표기되고 있다. 1899년에 만들어진 <濟州地圖>(1899)와 가시리 향토지에 의하면, 인근의 대륙산과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을 연결하는 일대에 갑마장(甲馬場)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근의 녹산장(鹿山場)에서 방목되던 말 중 품질이 우수한 갑마를 선정하여 길렀던 목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잣성은 갑마장의 경계용 잣성으로 볼 수 있다. 도로에서 약 100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가시리 갑마장 잣성은 현존하는 중산간 잣성 가운데 가장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데다 접근성이 용이해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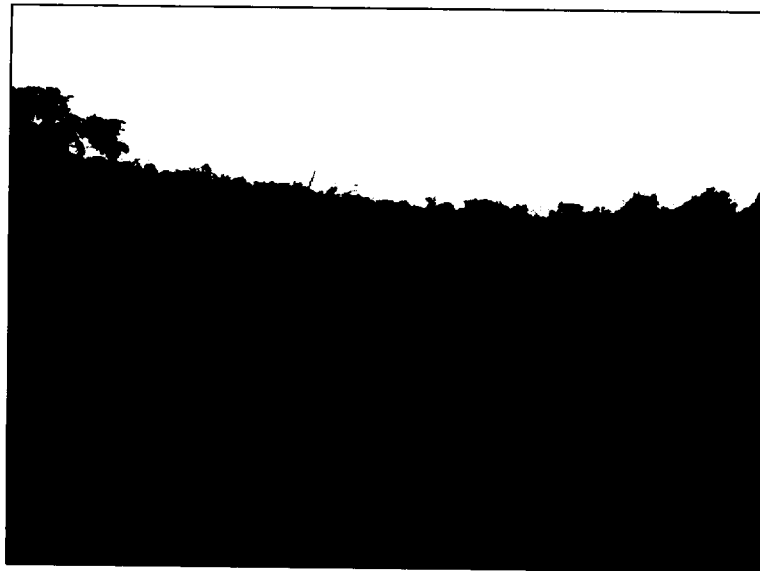


그림 8. 가시리 번널오름 갑마장 잣성

V.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 제주도 잣성의 설치배경, 형성시기, 분포실태, 축조방법에 대해 검토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잣성은 조선초기부터 한라산지에 설치된 국마장의 상하(남북)와 좌우(동서) 경계에 쌓은 돌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잣성은 조선시대 제주도 목장사와 목축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잔존유적에 해당된다. 둘째, 잣성은 크게 하잣성, 상잣성, 중잣성, 간장으로 구분된다. 이중 하잣성은 해안지대 농경지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와 경계부근에 그리고 상잣성은 중산간지대 방목지와 산간지대 삼림지와의 경계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중잣성은 상잣성과 하잣성 사이의 공간을 이등분하는 잣성이다. 이러한 잣성들은 국마장 상하한선을 나타내는 경계선인 반면 간장(間牆)은 각 목장간 경계선에 해당된다. 셋째, 잣성 축조동기를 보면, 하잣성은 중산간에 방목중인 우마들이 해안지대 농경지에 들어가 농작물에 입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축조되었다. 상잣성은 우마들이 한라산 삼림지역으로 들어가 동사하거나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넷째, 잣성 축조시기를 보면 15세기초 국마장이 설치되면서 하한선으로 하잣성이 축조되기 시작한 이후 18세기 중엽에 상잣성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잣성 축조시기는 현재 사료부족으로 인해 단정할 수 없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구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잣성 축조와 보수를 위해 지방관아(해당 감목처)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역을 부과하여 동원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제주도 잣성은 하루 속히 문화재 또는 민속자료, 기념물 등으로 지정, 보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잣성이 첫째, 중산간 지대에

서 행해진 목축이라는 경제활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조형물이며, 들제, 조선시대 목마장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유물경관이라는 점에서, 셋제, 잣성이 비록 성에 속한다고는 하나 방어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목장을 구분하는 경계용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빗제, 선형(線形) 유물로, 제주도(한국전체)에 남아있는 역사유물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길며, 다섯제, 단순한 들무지가 아니라 제주도 선조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역사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목축과 관련된 잣성이 제주도에만 분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현재 제주도의 목장사, 목축문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잣성은 산담 축조와 도로(농로) 건설 그리고 초지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허물어지면서 소멸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중산간 목장지역에 골프장이 입지하면서 잣성 소멸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잣성의 목축문화사적, 역사적 가치를 중시하여 일부 잣성이라도 문화재 또는 기념물(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 강만익, 「朝鮮時代 濟州島 官設牧場의 景觀研究」, 제주대 석사논문, 2001, 16쪽.
- 강만익, 「조선시대 金萬鎰 家系 山馬場의 입지환경과 유적」, 『제주마학술조사 보고서』, 제주도·제주문화예술회관, 2007, 33쪽.
- 金奉玉, 「잣성」, 『굽소리』 4월호, 한국마사회, 1989, 48쪽.
- 金榮治 編著, 『濟州史人名事典』, 濟州文化院, 2002, 97쪽
- 南廣祐, 『補訂 古語辭典』, 一潮閣, 1995, 418쪽.
-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박물관, 1996, 393-395쪽.
- 남제주군, 『군제60주년 남제주군지』 제1권, 2006, 42쪽.
-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晉齋, 1968, 162쪽.
- 『光海君日記』 권 155, 광해군 12년 8월.
- 『備邊司謄錄』 壬寅十月二十六日
- 『成宗實錄』 제283권 10월 4일 기사.
- 『世宗實錄』 권 45, 세종 11년(1429년) 8월 26일(庚子)
- 『世宗實錄』 권 47, 세종 12년(1430년) 2월 庚辰
- 『山馬牧場新定節目』(1794),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소장자료.
- 西歸浦市, 『濟州啓錄』, 서귀포시고서총람 번역 1권, 1995, 62쪽
- 『承政院日記』 正祖 8년 8월 10일(癸巳)(乾隆 49년)
- 윤용출,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제10호, 1986, 22쪽.
- 濟州教育博物館, 『耽羅誌草本』(春·夏)(上), 2007, 63-164쪽.
- 李元鎮, 『耽羅志』 <風俗> 條.
- 『正祖實錄』 13권, 6년(1782) 壬寅 1월 14일(辛亥)
- 『濟州邑誌』(1785-1789) <牧場> 條
- 『濟州大靜旌義邑誌』 正祖17년(1793)
- 『濟州邑誌』(1785-1789) <濟州牧 牧場> 條.
- 濟州道, 『濟州語辭典』, 1995, 484쪽.
- 濟州道, 『濟州道誌』(下卷), 1982, 115쪽.

- 松山利夫, 『山村の文化地理學的研究』, 古今書院, 1986, 321-322쪽.
제주자연사박물관, 『녹차재배개간예정지내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2000, 12쪽
한국문화원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남원읍역사문화지』, 2008, 160쪽.
한남리향토지편찬위원회, 2007, 『내고향 한남리』, 99쪽.
許垠, 『好近錄』, 吳成贊 外, 『好近·西好里』, 도서출판 반석, 1986, 60-61쪽.

Abstract

A Study of Jatseong in Jeju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Kang, Man-ik*

This paper is a study on formation and distribution of Jatseong in Mt. Halla-san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A term of Jatseong appeared officially in Jeju Do topographic map that was edited at 1974. Jatseong means long stone wall of Mt. Halla-san Region that was builded to define the boundary of Government-installed ranches dur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Jatseong was consist of Sang-Jatseung, Ha-Jatseung, Jung-Jatseung, Gan-Jang and was erected as the upper and lower boundaries of Sip-sojang.

From among these, Ha-Jatseung is locate in boundary line(200 meters above sea level) of the Middle-Mountain Region and Coast Region. It was the bottom line of Sip-sojang(十所場). Hajatseong was made from stone consisting of double lines in the boundary neighborhood of grazing land and farm land. Hajatseong was erected to prevented the invasion of farm land by cattle and horses. It was a upper line to cultivate inhabitants residing in the coastal area. Sangjatseong was established to prevented loss from freezing to death or loss horses at Halla Mountain forest belt. Sang-Jatseung is locate in boundary line(600 meters above sea level) of the Middle-Mountain Region and Intermountain area. Jung-Jatseung was divide into two

*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equal parts area of Ha-Jatseung and Sang-Jatseung.

As a symbol of Jeju Island ranches that operated by government during the Chosun Dynasty, Jatseong need systematic study and a conservation counterplan because Jatseong is impairing deeply by natural causes and social unconcern. As a method of preventing impairment to Jatseu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ust authorize the Jatseung as cultural properties and must protect Jatseung carefully.

Key Words

Mt. Halla-san Region, Sip-sojang, Sanma-jang, Jatseung, Gan-Jang, Sang-Jatseung, Ha-Jatseung, Jung-Jatseung, Joseon Dynasty Period

교신 : 강만익 690-0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 2동 2101-1
한라 하이츠빌 2차 502호
(E-mail : jeju-teuri@naver.com 전화 : 010-4199-2071)

논문투고일 2009. 07. 25.

심사완료일 2009. 08. 10.

게재확정일 2009. 08. 14.